

서로 지혜모아 하나되자!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남 석 우 회장

임오년 말띠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말처럼 열심히 뛰고 달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경영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시더라도 언제나 어둠을 뚫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대처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고컨대 2001년은 그 어느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LPG가격의 전면 자유화를 시작으로 LPG세제개편에 따른 부탄특소세의 대폭적인 인상,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전국 확대 실시, LPG체적거래제의 보완, LPG품질기준 마련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협회는 LPG판매업계·수입사 등과 힘을 모아 그

간 논란이 있었던 캐비닛히터용 부탄 등에 대한 특소세를 환급키로 하였고, 안전성향상 측면에서 기존 충전소의 저장능력을 확대해달라는 협회의 건의를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허용하는 등 업계의 숙원과제들을 하나씩 해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LPG용기의 재검사기한 연장을 산자부에 꾸준히 건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소차, 버스 등에 LPG차량이 도입되었고 우리 협회가 중소형 LPG엔진 연구개발에 동참하는 등 LPG차량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협회는 개인택시 LPG보조금 대행업무를 통해 고정고객화와 시장안정을 도모하였고 매몰저장탱크 재검사시 임시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가능, 홈페이지 운영과 통계집·소식지 발간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주유소내에 충전소 병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자부 소방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우리를 너무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우리회는 산자부·안전공사

등과 공조하여 이의 철회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협회는 ▲부탄 특소세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기존 충전소 시설 개보수 허용 및 저장탱크의 용량 확대 ▲프로판 특소세 폐지 ▲별크공급 확대 ▲주유소내 충전소 병설 반대 ▲협회 기능 활성화 ▲홍보 업무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업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 LPG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현안문제와 LPG충전사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제도개선을 이루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가는 2002년이 되길 바라면서 임오년 새해의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